

“코로나 이겨내자” 팝스타 열창에 1500억 모금



엘튼 존



레이디가가



스티비 윈더

엘튼 존, 스티비 윈더 등 참여

‘투게더 옛 홈’ 온라인콘서트

빌-멀린다 게이츠 부부 등 메시지

거물 팝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온라인콘서트 ‘원 월드: 투게더 옛 홈’(이하 투게더 옛 홈)에 1억 3000만달러(약 1584억원)에 육박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부금이 모였다.

빌보드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투게더 옛 홈’을 통해 바이러스 대유행에 맞서 싸우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1억2790만달러의 기부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주최사인 빈곤퇴치 단체 ‘글로벌 시티즌’은 이

중 5510만달러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19 연대 대응 기금에 지원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인 7280만달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전세계 지역의 푸드뱅크, 쉼터, 지역사회단체, 금융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쓴다.

지난 18일 열린 ‘투게더 옛 홈’은 TV방송 중 시청자에게 기부를 독려했지만 거금이 모였다.

주최자 레이디 가가를 비롯해 진행자 지미 키멜 등은 “지갑을 치워 버려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콘서트는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투게더 옛 홈’은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 의료진을 응원하는 한편 시민들이 집에 머물도록 독려하기 위해 열린 대규모 온라인 콘서트다.

팝스타 레이디가가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과 함께 주최해 방송 채널과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엘튼 존, 스티비 윈더, 테일러 스위프트, 카밀라 카베요, 셀린 디옹, 빌리 아이리시, 찰리 푸스, 션 멘데스, 존 레전드, 베이 지, 제니퍼 로페즈, 리조, 샘 스미스 등 가수 60팀 이상이 출연했으며, 프리 콘서트를 포함해 총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수 개인이 자기 SNS에서 온라인 라이브를 선보이거나 코로나19 기금을 마련하고자 비슷한 포맷의 콘서트를 열기도 했지만, 이처럼 가수 수십팀이 출연한 대규모 온라인 콘

서트는 ‘투게더 옛 홈’이 처음이다. 이런 점에서 이 콘서트를 두고 ‘온라인 버전 라이브 에이드’, ‘21세기 판 라이브 에이드’라는 비유가 나왔다.

가수들은 각자 집에서 촬영한 라이브 공연과 함께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빌-멀린다 게이츠 부부, 오프라 윈프리, 데이비드-빅토리아 베컴 부부, 엘런 디제너러스 등 각계 유명인사들도 출연해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이그룹 슈퍼엠이 ‘투게더 옛 홈’에 참여했다. 멤버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요리, 운동, 그림 그리기 등을 하다가 ‘위드 유’(With You)를 가창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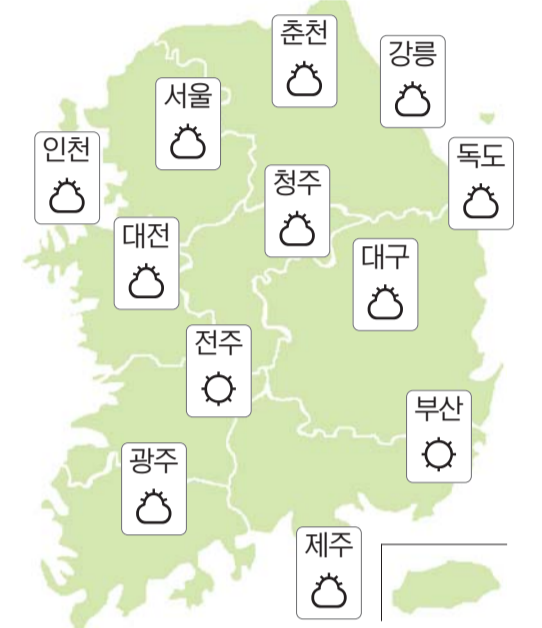
해돋이	05:53	달뜨기	05:13
해지기	19:10	달짐	17:28

강풍주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7/14	보성	구름많음	5/14
목포	맑음	8/12	순천	맑음	8/16
여수	맑음	9/16	영광	맑음	6/12
나주	구름많음	5/14	진도	맑음	9/13
완도	맑음	9/15	전주	맑음	6/14
구례	맑음	6/16	군산	맑음	7/12
강진	구름많음	6/15	남원	맑음	5/14
해남	구름많음	6/14	흑산도	맑음	9/13
장성	구름많음	5/14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2.0~3.0	
	면바다(북)	1.0~2.5	2.0~4.0	
	면바다(남)	1.0~2.0	2.0~4.0	
남해 서부	앞바다	0.5~1.5	1.0~2.5	
	면바다(서)	1.0~2.0	1.5~2.5	
	면바다(동)	1.0~2.0	2.0~3.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37 18:57	01:20 13:39
여수	02:09 14:27	08:29 20:40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22(수)	23(목)	24(금)
5/13	5/13	5/17
25(토)	26(일)	27(월)
8/19	7/19	8/19

KLPGA 프로골퍼 이다연·김지현 벤츠 탄다

더클래스 효성 후원 협약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은 프로골퍼 이다연·김지현과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은 최근 지난해 12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효성챔피언십 위드 SBS 골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이다연·김지현 프로와 공식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선수는 2021년 12월까지 더클래스 효성 로고가 부착된 경기복을 착용하고 더클래스 효성이 주최하는 브랜드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다연과 김지현에게 공식의 전 차량으로 각각 메르세데스-벤츠 GLE 300d와 CLS 400d 4매틱을 지원한다.

이다연은 크지 않은 체구에도 250야드에 달하는 장타를 뽐내 ‘필드 위의 작은 거인’으로 불린다. 2015년 KLPGA에 데뷔해 통산 5승을 기록한 스타 선수로, 최근 2020 KLPGA 개막전인 ‘효성챔



더클래스 효성 임성현 대표이사와 이다연 프로가 스폰서십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피언십 위드 SBS 골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김지현은 초등학교 때까지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9년 KLPGA에 입회한 이력을 갖고 있다. 2019년 두산 매치플레이어 우승을 비롯해 총 5승의 우승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실력파 선수다.

임성현 더클래스 효성 대표는 “두 프로의 우승을 향한 도전 정신은 물론 필드 위의 경쟁을 즐기는 긍정적인 모습에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두 프로가 대회에 전념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배구·농구 스타 부부 탄생

황연주·박경상 다음달 16일 화촉



배구·농구 스타 부부가 탄생한다.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 라이트 황연주와 남자프로농구 가드 박경상(울산 현대모비스)이 5월 16일 화촉을 밝힌다.

해피메리드커플러는 20일 “황연주·박경상 선수가 5월 1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엘리베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라고 밝히며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결혼식은 주례 없이 진행하며 사회는 방송인 이휘제가, 축가는 포맨 김원주와 전상근이 한다.

2005년 프로 생활을 시작한 황연주는 개인 통산 득점 역대 2위(5443점)를 달리는 등 여자프로배구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이기도 하다.

4살 연하인 박경상은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전주 KCC에 지명돼 프로 무대를 밟았다. 현재는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뛰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청년한방병원장, 광주장애인펜싱협회장 취임

청년한방병원 김지용(사진) 병원장이 제4대 광주장애인펜싱협회장에 취임했다.

청년한방병원은 20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실에서 김지용 병원장이 제4대 광주장애인펜싱협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선임 회장은 지난달 대한장애인펜싱협회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인준절차를 마무리했

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 2008년 설립된 광주시장애인펜싱협회는 장애인 펜싱의 불모지였던 광주에서 꾸준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 왔다.



김지용 선임 회장은 “광주 장애인펜싱의 저변확대와 장애인들이 펜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년 500만원의 후원금 기탁을 통한 선수 육성과 각종 체육 행사 지원 등을 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1일(음 3월 29일 甲午)

☎ 010-9790-8237

36년생 시국이 반이니 우선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48년생 기한을 초과한다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60년생 누적 되어 왔던 것이 모양새를 갖추게 되리라. 72년생 설익은 상태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자. 84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하니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96년생 소신껏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7, 60

37년생 의외의 탈이 생겨서 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49년생 찬란한 영광이 따른다. 61년생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73년생 가는 말이 고야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85년생 활동력을 강화해야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 있다. 97년생 현상 유지하는데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2, 66

38년생 수용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겠다. 50년생 재물이 즐비하니 취하는 이만 임자가 되리라. 62년생 속단한다면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니라. 74년생 강함과 유연함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라. 86년생 여러 가치를 함께 세심히 살펴보아야 붕괴하지 않는다. 98년생 마음을 비우고 긴 안목으로 내다보아라. 행운의 숫자 : 53, 84

39년생 의심스럽다면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51년생 전면적인 실행을 요하니 추진력을 높여야 할 때다. 63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 속에 희망이 싹트리라. 75년생 무리 없이 조절할 수도 있음을 참작하라. 87년생 굶지 말고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99년생 의미 있는 일을 접하는 영귀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64

40년생 신념을 정리하고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는다. 52년생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64년생 알뜰하고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불이 붙었을 때 확실히 지퍼야겠다. 88년생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음이 나은 것이다. 00년생 원대한 관점에서 적극적인 진행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09, 71

41년생 앞장 걸음을 거두게 된다. 53년생 의욕이 앞서더라도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65년생 큰 행보로써 수용하는 것이 맞다. 77년생 이익이 따르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89년생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01년생 강한 행운의 암시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1, 93

42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하라. 54년생 달라고 있다. 66년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78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 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90년생 참고 기다린다면 늦게나마 취할 수 있겠다. 02년생 노파심은 활동력을 저하시킬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6, 62

31년생 주저하지 말고 실행해야 해결 될 것이다. 43년생 시기와 구체적인 범위의 구획에 따라 그 성과는 천차만별 하리라. 55년생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67년생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79년생 일부러 시간을 내더라도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 놓음이 합당하다. 91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행운의 숫자 : 32, 73

32년생 박자를 가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44년생 명확한 기준으로 개념을 분리하라. 56년생 지리 멀렷던 소강상태를 극복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능동적인 여건이 조성 되리라. 68년생 모순점이 보인다. 80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임직위장하리라. 92년생 불완전하지만 그렇다고 속 태울 정도는 아니로다. 행운의 숫자 : 21, 98

33년생 고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느니라. 45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 날 수도 있다. 57년생 힘들더라도 차츰 전망이 밝아질 것이니 앞날의 가능성을 보고 임하라. 69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 81년생 멀리서부터 길성이 비춰오니 만사여의 하리라. 93년생 두루 살펴가며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16, 80

34년생 절차는 제대로 밝아 들어 편리할 것이다. 46년생 제반 사항을 아우르며 매끄럽게 도모한다면 실속이 있을 것이다. 58년생 생산성을 제고 하라. 70년생 중지를 모은다면 모색할 수 있다. 82년생 현재의 판세에 있어서 당해 사항 외에 굳이 여유분을 뿜 필요까지는 없었다. 94년생 자신이 변해야 국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94

35년생 무리하다보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47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는 것이 옳다. 59년생 줄어드는듯하다가 머지않아 증폭 될 것이다. 71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83년생 인공호모요, 사팔귀정의 원리 속에 기막힌 인연임을 알게 되리라. 95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9, 55